

김별아의 문학과 삶



영신이의 편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요가 강좌에 등록한지 네 달째가 되었다. 수업은 2층 관리사무소에 떨린 대용도실에서 진행되는데,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1층의 노인정을 지나야 한다. 요즘은 날씨가 무더워 실내가 답답한 어른 신들이 관리사무소 앞뜰의 정자에 주로 나와 계신다.

어느 하루 정자 앞을 지나노라면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 흑발의 '새벽' 한 명이 끼어 앉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나중에 보니 그 '새벽'은 나와 함께 요가 수업을 듣는 아주머니이다. 나이는, 아니 연세는 67세. 공식적인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를 훌쩍 넘어서고 여전히 '진짜' 노인들 사이에서는 '새벽'이나 다행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노인정에서 일주일에 세 차례씩 침침 식사를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아주머니, 아니 할머니도 얼마 전 칠순잔치를 하신 분이다.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만으로 실감할 수 없었던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한 1800년, 바야흐로 조선에 19세기가 시작되었던 때의 광

군 수명은 37세로 추정된다. 독일에서 실시된 인구통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 시대 30세의 모습은 지금의 72세와 비슷하다고 한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고작 200여 년 만에 인간의 삶을 두 배로 확장시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젊음은 너무 짧고 감당해야 할 노년의 고통은 너무 크다. 신조어로 '노후 난민'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기본 생계가 어려운 노년층이 늘어났고, 2009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층의 45%가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한다. 2004년 전의 장수는 촉복이었으나 2000년대의 장수는 차라리 공포에 가까운 것이다.

200년 전이었으면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였으나 200년 후인 지금은 인생의 반 고비를 겪어야 넘은 나이가 되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고민한다. 노후 대비면서 일자리로 물질적인 부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 정신적인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야만 삶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미래만큼이나 불명확하다. 더 이상 젊지 않으나 아직 늙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하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움켜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과거

의 흔적이 주름살로 새겨지기 시작한 채로 머지않은 미래를 예감하며 불안해한다. 이 애벌로 지금 한국 사회의 평범한 중년, 사오십 대의 모습일 것이다.

얼마 전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아이의 친구 영신이가 50세를 맞은 아빠의 생일에 보내온 편지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게시판'에 올라왔다. 편지를 받은 당사자인 영신 아빠가 혼자 보기 아까워 공개적으로 '아들 자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자식 자랑은 불출이라지만 진짜 자랑할 만한 편지였다.

"(상략)... 아빠 이제 50살이네.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100살까진 살 테니까 이제 딱 반 왔다. 나는 항상 말하지만 아빠가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까 아빠가 제2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항상 아빠 눈을 보면 뭔가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거나 힘이 없어 보여. 그럴 때마다 너너 아쉬워. 아빠처럼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꿈을 못 찾았다는 게. 하지만 아빠가 꿈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난 정말로 아빠가 감정 표현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좋은 건 좋다. 쉽으면 쉽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주니

까. 개인적으로 아빠가 우리 가족을 마음의 안식처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 그래도 날 이렇게 18년 동안 멋지게 키워 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엄마, 아빠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도 엄마, 아빠일 거야. 아빤 나에게 최고의 아빠야! 사랑해!"

18살짜리 아들이 50살의 아빠에게 바라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라거나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인생의 반 고비에 이르러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무력해진 아빠에게 꿈을 가지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원하는 무언가를 찾으라고 격려하는 것이었다. 언제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자랐나. 내 자신 남의 자식을 떠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에 모두들 가슴이 뭉클해졌다.'

조금은 진부한 말이지만 오늘, 바로 지금은 내게 남은 삶의 나날들 중에 가장 짧은 순간임이 분명하다. 꿈은 늘지 않는다.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노년에 대한 불안과 공포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밟힐길을 이을 수 있을 것이다. 길어진 수명만큼 제2의, 제3의 삶을 꾸려갈 진정한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다. 영신이의 편지 한 통이 짐짓 조로해가는 나를 때끔하게 일깨운다. <소설가>

종교칼럼

방길튼
원불교 니주교당 주임교무

불평등의 고리

차별을 기(氣)의 차이로 간주하여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며, 보편적 불성(佛性)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차별을 개인의 업에 따른 업보로, 신(神)의 피조물로 신 앞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차별을 신의 뜻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비해 이 땅에서 발흥한 수은 선생의 동학은 일체의 불평등 차별을 인간들이 만들어 부과한, 사회적으로 강제된 부당한 차별임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불평등에 철저히 저항했던 사건은 동학농민혁명이다.

역사에서 아이러니는 조선왕조의 지배자와 식민제국을 꿈꾸던 일본은 다 같이 동학농민군을 철저히 제거했다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지배자 입장에서는 암적 존재로 여겨져 이런 평등사상이 전파되며 지배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되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 때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제안한다. 이 내용을 지금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재벌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 처벌할 것,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금할 것, 부동산 투기를 금할 것, 남녀차별을 폐지할 것, 뇌물 청탁에 의한 인사비리를 조사할 것 등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삶의 터전인 토지와 자본이 공정히 배분되고 신분과 지역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이 동학농민혁명의 이상이었다면 불평등한 이 시대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진행형이다.

소수의 강자는 자신의 이익이 나머지 다수의 약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관념을 심어 주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설득하고 있다. 잔을 피리미드같이 쓸어놓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워아 아래로 흘러넘치듯이, 대기업과 대도시가 잘 되어야 중소기업과 지방에도 그 혜택과 여파가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역사는 기득권이 영원히 보존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아마 기득권자들은 이런 세상이 영구화되길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

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의 대가를 알아야 하며 불평등은 강자든 약자든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지시키고 있다.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바탕이 되고 의지가 되므로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리(自利利他)가 되도록 강자약자가 진화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소수의 강자는 다수 약자의 도움이 없는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강자의 풍요는 다수 약자의 노고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약자는 소수 강자의 욕심에 타협해서는 안 되며 소수 강자에게 이로운 것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감성적으로 강자에 대한 인신공격의 비난이나 약자에 대한 동정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 불평등의 해결을 개인의 노력에만 미루지 말고, 강자와 약자가 쌍방 이익이 되는 사회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집단지혜가 요청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불평등의 고리도 끊어가야 한다.

기고

김민호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물놀이 안전사고 줄일 수 있다

고 법적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어난 계곡물에서 수영을 즐기다 당하는 사고, 수영금지 표지판과 입수통제 시간을 무시하다 당하는 사고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외수면을 가지지 않는 각종 사고현황을 종합해보면 '안전불감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해수욕장은 더위에 지쳐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더 없이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 요즘은 휴가에서도 웰빙(Well-being)을 중시해 산소 음이온이 풍부하고 수심이 원만해 해수욕을 즐기기 일쑤는 서남해안 해수욕장을 수많은 피서 인파가 찾아 오고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사람하는 사람들과 떠나는 특별한 경험, 솔밭에 텐트를 치고 갯벌에서 달랑개와 조개도 잡고 모래사장을 거닐며 우리들의 흔적을 남긴다. 모래사장에 착혀있는 밭자국 수만큼 추억도 늘어간다.

하지만 모든 밭자국이 좋은 추억만을 남기지는 않는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은 바닷가에서 그 인연을 두고 오는 경우를 빙반하게 들을 수 있다. 암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은 기본

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자연 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지만 인재(人災)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물놀이 사고는 예방만이 최우선이다. 그럼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어떠한가?

해양경찰 구조선은 물 위에서 그 따가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연신 해수욕장을 순찰한다. 또한 언제든지 물에 빠지거나 파도에 휩쓸린 피서객이 발생하면 자체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갈 구조요원이 백사장 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구조요원은 오리발과 인명 구조장비인 레스큐 튜브를 항상 휴대하고, 구조용 수트를 착용하는 등 물발상방 일생수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여성 응급구조와 미야찾기로 도맡고 있는 여성구조대도 해변을 지키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수욕객이 물리는 백사장에

서 핸드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활동하는 행위 일명 '해수욕장 물카방'을 예방하고 겸기하기 위한 전담반도 운영되고 유리병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까지 해양경찰에서 진행 중이다. 이 요원들은 동장군의 위세가 물러나기도 전부터 구슬땀을 흘려가며 훈련에 돌입했던 전문성 갖춘 정예요원들이며, 구조에 관해서는 그만 최고라 단언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요원들의 힘과 노력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법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과도가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악천우 시에 수영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임에도 내기수영과 약간수영, 심지어 만취상태에서 입수하는 위험한 행동들이 장난삼아 저질리고 있다.

한해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는 2000여건, 최근 3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휴가철인 7월부터 8월에 전체 사고의 67%가 집중된다. 여름철 안전사고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물해에도 분명히 사고는 발생할 것이며 누군가는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여름바다의 매력에 흘러 취하고 싶은 욕망에 앞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물놀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즐거운 휴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줄지 않는 여성흡연... 보건당국 적극 금연정책 필요

여성의 흡연은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해악이 큰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흡연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웃집에도 여고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담배를 피워 애 엄마 아빠가 걱정이 태산이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이 아이는 담배를 피운 기간이 3년이나 된다. 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부모나 교사에게 들길 경우 꾸중이 둬려워 대부분 혼자 있을 때나 편지 않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20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여성이나 첫 만기출산 최소한 5년 전에 흡연을 시작한 여성 그리고 담배를 장기간 피워거나 흡연량이 하루 20개비 이상인 여성은 모두 유방암 위험에 현저히 높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성의 담배를 피우면 자궁의 임신 가능성에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즉 흡연 여성은 수란관(난소)

▲오수금·광주시 북구 두암동

社說

2015 광주U대회 이제 준비에 만전을

태 시장은 "광주U대회를 친환경, 평화, 최첨단 IT, 문화를 담은 에픽(EPIC)대회로 치러내겠다"면서 성공 개최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대회이고, 세계의 시선이 한곳으로 모이는 이벤트라 하더라도 그냥 일과행 행사로 준비한다면 광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대회 준비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빛고을 광주를 세계 속에 드높일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U대회는 170개국에서 2만여명의 선수와 심판, 보도진 등이 참여해 12일간 21개 종목에서 350여 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수치화된 경제효과가 아니더라도 광주U대회의 의미는 크다. 광주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시아 변방에서 세계 도시로 발돋움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중장정부도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야 할 물론이다. 시민 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일도 중요하다. 남북단일팀구성도 기필코 성공시켜 남북통일의 초석을 깔아야 한다. 5·18과 아시아문화수도로 상장되는 빛고을은 광주의 저력이 세계 속에 빛을 발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도주차량 방지해서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격돌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 운전자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거나 부상을 입힌 채 달아나는가 하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도주하는데도 쓰아갈 업무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 단속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가용 인력이 없고, 음주 단속 시간과 장소도 '뻔한 지역과 시간대'에 이뤄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에야 사전 예보제를 없애고, 주·야간으로 단속을 확대됐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이미지도 격돌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순찰차 운전자도 단속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도주 차량 추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나 다른 바 없다. 그럼에도 광주경찰은 '음주 단속'과 '도주 차량'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격금지를 권하고 있다. 단속 경찰의 부상을 막기 위한 방침이라지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추격을 포기하면서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경찰은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광주 9685건, 전남 9954건 등 1만9639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경찰의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이 추격을 포기하는 게 가당한 일인가.

無等鼓

프로메테우스의 불 이후 인류가 발견한 '두 번째 불'이라 불릴 정도다보니 이름도 가지지 않았다. 자주 깨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꼭 건널같다고 해서 '건달불(乾達火)'이라고 했고, 발전기 가동으로 연못의 수온이 올라 물고기가 폐죽을 당하자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의 '증어(蒸魚)'라고 불렸다. 마귀가 켜는 불이라거나, 신기한 불이라 하여 데화(妙火)라고도 했다.

에피소드도 많아 일부 사람들은 오랑캐의 불이라 부르며 전등불 아래서는 제사를 모시지도 않았다. 노인들이 담뱃불을 불이기 위해 구조를 빼고 소켓에 담배핀을 꽂는 바람에 퓨즈가 나가 정전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2년여

의 계몽기간이 지난 후 사라졌다.

백열전등이 우리 땅에 들어온지 127년만인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부의 예산을 밝힌 전등보다 더 큰 충격과를 던졌다. 궁을 밝힌 전등은 1900년 종로에 조명용으로, 다음 해에는 진고개 상가와 주택가에 상업용으로 공급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한국수사당은 2015년 7월 20일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